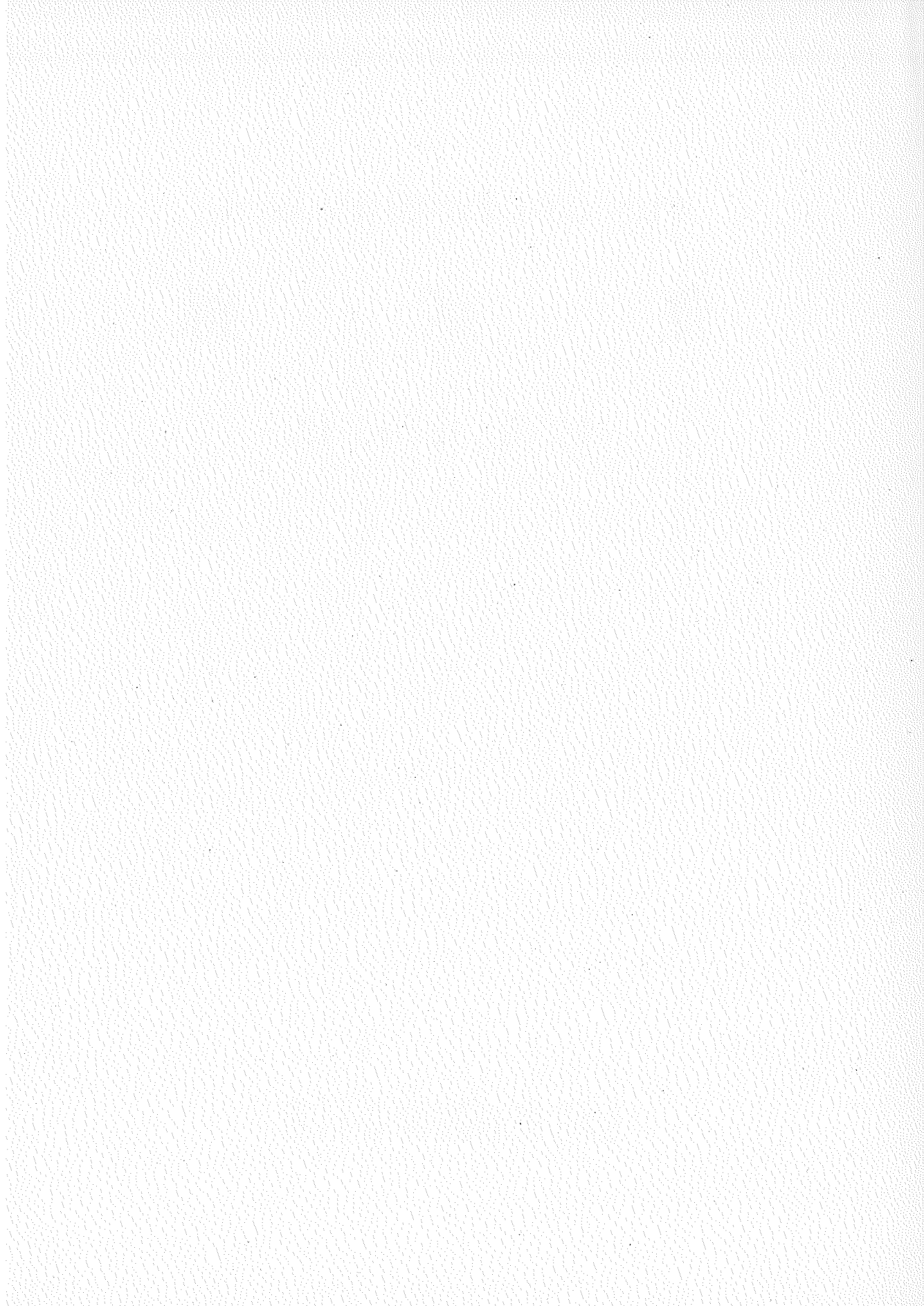


第1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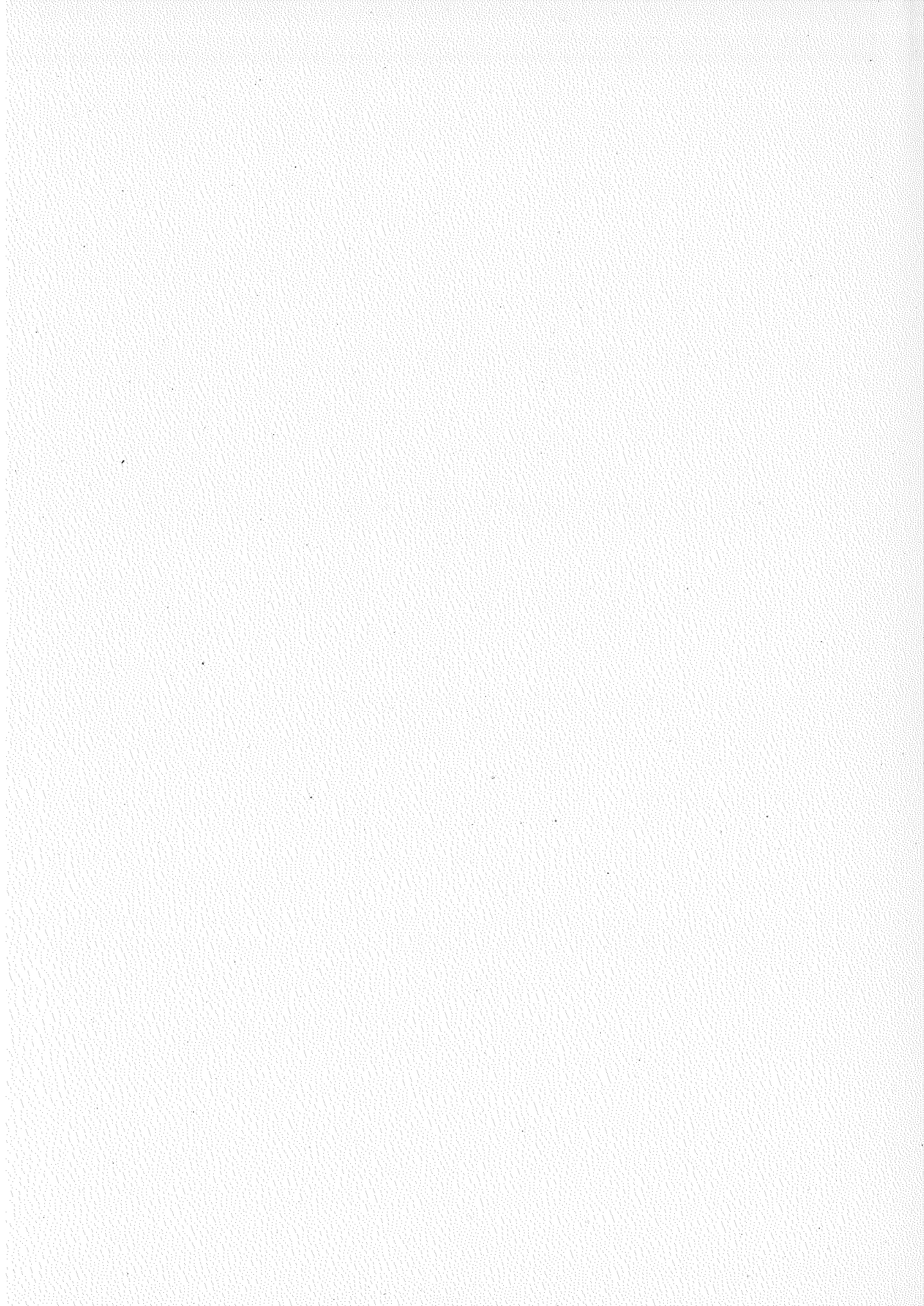
( '92. 8. 12 ~ 8. 13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49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51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2년 8월 12일 (수요일) 14시 00분

## 의 사 일 정(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일위원외 3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김사수위원외 3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2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1일 이상일 교육위원의 3인 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2-6호로 8월 1일 공고가 되어 오늘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의결의안 처리결과입니다. 11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6월 23일자로 모든 의안을 이송하였습니다.

도의회 제출의안 처리결과는 충청북도 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수정의결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청 청사 노후배관 시설교체 부족분 계상액 2억5천만원등 도합 4억9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한 예산으로 의결되었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한 6조를 삭제하여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92년 7월 31일 공포 완료되었습니다.

새번제로 금번 제12회 임시회 처리안건으로는 7월 31일 김사수 교육위원님의 세분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판인규칙중개정규칙안과 8월 11일 이상일위원님의 세분이 발의하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내번제로 성남국민학교 일조권 침해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제11회 임시회의시 긴급발의로 이상일위원님의 다섯분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6월 22일 충주 성남국민학교 현지 확인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주시교육장, 성남국민학교장, 동학교 학부모대표, 충주시청 개발국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이어 충주시장을 방문하여 '건축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임을 감안, 재의에 회부하거나 건축계획을 백지화 하도록 시공자를 설득하여 주거나, 5층이하의 건물로 시공케 하는 등 교육현장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그 확인결과 통보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충호위원께서는 중국 방문중이셔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2.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 김사수 교육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이상일 교육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교  
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  
석요구의 건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석 침묵)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8월 12일  
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이상일 교육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 이상일 교육위원입니  
다.

본인의 3인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  
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2년 8월13일 10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및 각 국장, 행정  
관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장이 되겠습니  
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교육위원외 3인  
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  
규칙(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김사수 교육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나, 편의상 의사국장으로 부터 제  
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사회대로 나옴)

○ 의사국장 민병수 : 의사국장 민병수  
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  
인규칙중개정규칙안 내용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  
로 '의사담당관'의 직명이 '의사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교육위원회 규칙입니  
다.

교육위원회 규칙으로써 조례심사 소위원  
회에 부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  
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은 본회의  
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의결  
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재회, 박병해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회, 박병해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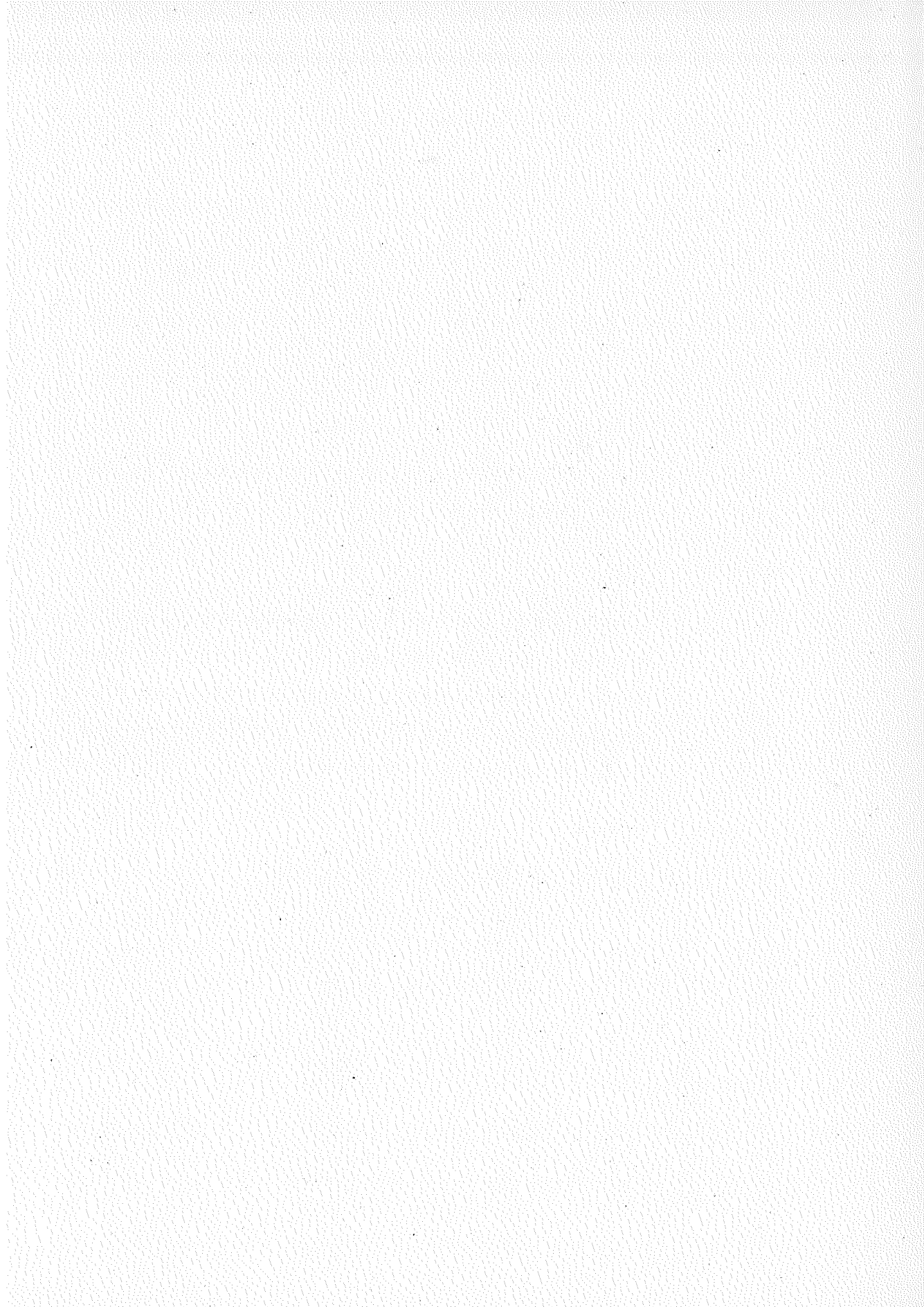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회,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 출석공무원 : 15명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 2.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8월 13일 (목요일) 10시 00분

## 의 사 일 정(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기타 안건처리

##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3. 기타 안건처리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8월 1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청취하시는 순서로 진행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공무로 출장중이어서 질문·답변시 참석할 수가 없으셔서 초등장학과장이 답변에 임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사하는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2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  
규칙(안)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위원 :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에 보면 "직인"이라고 있습니다.

"직인의 규격 준용"이 있고, 그 옆의 개  
정안에 보면 "관인의 규격 준용"이라고 나  
와 있는데, "직인"하고 "관인"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의장 김영세 : 예, 의사국장 답변하  
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석에서)

○ 의사국장 민병수 : "관인"하면 원래  
그 직인과 청인을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관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인"이라 하면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  
감, 이렇게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인을 직인  
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 권혁풍위원 : 관인은 총괄적인 것이  
군요?

○ 의사국장 민병수 : 예.

○ 권혁풍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토론에 있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반대토론 없으시죠?

반대토론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  
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  
다.

질문 진행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

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일괄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 이상일위원입니다.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교추위의 활동과 이에 대한 충청북도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교추위에 서명한 교사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각 시·군 교육청별로 숫자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서명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두번째로 충청북도 교추위원장에 충주 중앙국민학교 박중순교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중순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징계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 박교사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라는 일부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운동을 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운동이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더욱 확산될 기미는 없는지, 알

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이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이지요, 박중순교사 징계를 계기로 단위학교별로 조직을 확대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학중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고등학교에 실습지, 농장이나 양식장같은데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의 임용권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바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러합니다.

실제로 보며는 그 목장같은데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인원이 딱 찢어져도 덮고 그래서 가축 사육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사람이 하나, 둘씩 빠지고 바로 보충이 안되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인력수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이 삼복더위에 수고하

시는 관계관님들에게 참 좋은 칭찬은 드리지를 못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도 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선 여러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이제 2학기부터 학원개방을 하면서 교외생활지도에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것은 구체적 예를 든다면 재천에 저희 집 바로 곁에 재천에서 가장 큰 중합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11시가 되면 그 원생들을 실어나르는 봉고차가 한 서너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며는 그저 네 사람, 여섯사람 짝지어 가지고 남·여학생들이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또 출입구가 대로변인데 재수생인지, 재학생인지 구분은 못하지만 그저 담배 꼬나물고 회회낙낙 거리고 있는데 제가 여름철 몇 개월동안 거기를 서성거리도 생활지도를 나왔다는 선생은 한번도 본일이 없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학원개방을 하면서 이런 중합입시학원 같은데는 아주 교외생활지도를 상주시키는 것이 어떨런지, 한번 그래서 말씀을 여쭙어 보는 겁니다.

두번째는 관리국장님에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전에 참 불행하게도 행주대교가

붕괴가 되어서 전국민이 아연실색한 일이 있고, 또 이걸 계기로해서 지금 정부발주 공사에 전면적인 감수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이런 부실공사하는 곳이 혹시 없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제가 어제 오다가 원월생활관을 들려봤는데,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에는 웅벽공사, 담장공사 예산이 통과가 되어있는데 아직도 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 좀 여쭙어 보고, 그 다음에 원월생활관에 가보며는 운동장 정비도 안되고 아주 미관상 안좋은데 벌써 원생을 한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관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원생을 받을 정도면 각 학교에도 어떤 학습진도관계도 문제가 되겠으니까 공사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어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일선학교 공사에서 관급자재의 검수요령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어 봅니다.

뭐 K.S품목이 되어있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은 검수가 필요없겠지만, 어떤 한 공장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 공장에서 조달되는 벽돌같은 것은 어떻게 검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슨 벽돌 강도라든지, 또 조달청에

납품된 어떤 샘플(sample)이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량만은 검수를 하겠지만 그 질에 대한 검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선 시·군에도 판급자재 검수요령에 대한 어떤 교육실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어 봅니다.

그다음 세번째입니다.

이 단양, 제천지역에는 그 오지가 많아서 텔레비전 난청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교육방송이 참 방송 프로그램도 좋고, 상당히 좋은게 방영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나오는 방송 테이프는 한 개당 3만원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 여론이 '연구원 같은데서 그런걸 복사해서 좀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감사수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수 위원 : 감사수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본청 보이라 배관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심의때도 순조롭게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6월 중순경인가요, MBC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지금 도내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책상을 대체할 것이 6만3천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한 사업은 안하고, 교육청의 보일러 배관공사를 근 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걸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방송을 아침, 저녁 두번인가 세번에 걸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서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적에 '교단위주 로다가 예산을 할애하려고 한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했지마는 과연 우리 예산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교단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예산 할애를 하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제 자신이 예산소위원회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인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부끄럽고 참 많은 것을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공사를 총액입찰 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총액 입찰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냐, 잘 납득이 안가서 거기에 대한 총액입찰 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공사 전체내역을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공사의 설계 금액하고 공사의 그 명세 내역인데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중요한 것만 대별에서 해주시고, 서면으로 좀 간추려서, 이 명세서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간단하게 내역서라고 하나요, 그걸 좀 서면으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2일 입찰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입찰 과정, 입찰 응찰인원이 몇 명이 되고, 입찰 방법은 어떤 걸로 했으며, 또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을 좀 공개해도 괜찮으면 공개를 하시고, 공개하기가 거북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낙찰가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그전하고 좀 법이 바뀌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낙찰가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좀 겸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인데, 확보된 예산하고 현재 이 공사를 하려면 아직 미확보된, 부족한 것이 아마 있다고 믿는데 그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 예산확보가 현재까지 없었으면 어떠한 대책으로다가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은 1차 계약을 하신 모양인데 이제 앞으로 2차 계약을 하시겠죠, 보니까 예산책정 범위내에서 한도내에서 앞으로 계약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1차 계약금액과 공사내역, '1차에 뭐를 할 것이다,' 하는 그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좀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예산은 이렇고, 차후 공사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답변하시는 것 듣고서, 또 보충질문 할 것이 있으면 그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박병해위원님 질문은 다음 회기로 이첩했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입니다.

제가 여덟가지를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두가지를 빼고서 여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해당되는 "학생수 증감및 교육공무원 임용증감수 현황표", 이것은 인력감사 결과를 봐야 아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알고보니, "인력감사가 실행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것은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것으로서 최근 중·고생 흡연을 조사통계표 및 그 대응책의 자료를 구했습니다.

문교부에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87년도에 고교 남학생의 19.1%가 상습 흡연자라고, 이렇게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게 불적에 우리 충청북도도 상당한 학생수가 흡연에 해당되지 않는가, 흡연이란 것은 건강에 아주 참 나쁜걸로 이렇게 보고있는데 과연 우리 현황은 어떤가, 이것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중·고별로 남·여별로 퍼센테이지를 알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지도방법,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제 두번째가 되겠죠, 아주 우리 교육현장에서 고질병에 해당되는 보충수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수업을 '중전의 입시제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이다, 이것은 참 입시제도가 완전히 혁신되지 않고는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는 방법으로써 입시제도를 수학능력평가라고 이렇게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고질병이 좀 고쳐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도 변화 없이, 더 극성을 부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능력평가는 왜하는 건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현행 중·고교 보충수업의 유형과 그 목적,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응방침, 개선책 이런 것을 중·고별로 해서 그 보충수업의 근본목적이나 취지가 된대, 여기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 뭐고, 이것 고쳐야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고,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5차 교육과정을 한번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6차 교육과정이 지금 확정 단계인데 교육목표는 별로 변함이 없는 걸로 대동소이한 걸로 보고서 5차 교육과정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중학교 교육의 목적이 여섯가지가 나오는데, 대충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와 정신의 급속한 성장·발달에 대응하여 성숙한 자아의식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게 한다", 라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다, 중학교 교육의 목적이.

두번째는 "건전한 집단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고, 국가 사회발전과 인류행복 증진에 봉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즉, 첫번째 조항은 "강인한 체력과 의지", 두번째는 "도덕적 판단력과 봉사하는 태도",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언어, 수리,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여기서는 핵심이 "언어수리능력", 즉 "기초기능" 이죠,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초원리를 이해시키고, 정보처리능력과 탐구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해서 여기의 골자는 "정보처리능력, 혹은 탐구능력" 이렇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풍부한 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혀 다양한 개성을 가지게 한다." 여기서 즉 "미에 대한 감상 및 표현력" 이걸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 "생활에 유용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즉, "생활의 기초기술, 평생교육의 능력", 이렇게 골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중학교 교육목표는 이렇게 정해놓고서 우리가 하는 그 보충수업이라든가, 특별 보충수업이 과연 그런것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목표를 수행하는, 정말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때 전혀 거기와 거리가 먼 연목구어가 아니냐, 그렇게 볼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보충수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따져서 '고액과외를 했다, 뭐 이것의 책임을 추궁해서 몇 사람을 해직시킨다든가, 징계에 부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정말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서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기본의지가 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가지 고액과외의 건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떤 강력한 문책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다른 질문....
- 권혁중 위원 : 아직 있습니다.

또, 계속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계속 예요?
- 권혁풍 위원 : 예, 그 다음에 네번째는 각종 특수목적교의 교육적 효과와 평등교육과의 상치성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체육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예술, 해원학교 기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예산 총액이 '88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서 얼마씩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목표달성이 지금 어느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 특수목적이란 뭐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 특수목적은 뭔가, 그게 과연 달성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데, 과연 우리 체육고등학교 출신이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체육대학에 어느만큼 진학을 해서 우리 한국체육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이 몇 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에 해당되는 '최근 교단 선진화를 위한 대책과 그 추진도', 이것은 다음 9월달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교도교사 자격연수 현황', 즉 '92년도까지 아마 몇 년전부터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취지가 뭐다, 즉 '전 교사의 카운셀러화다', 그러며는 정말 취지가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그 연수를 받고 있는 연수자의 연수동기도 과연 그런 건가, 또 그 경비는 그 취지에 맞게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에서 부담하는가 과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이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학능력평가 대비준비 상황', 이걸 늘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일선현장에는 이것이 P.R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당국에서는 열심히 P.R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 개념부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선교사가 몰라서 연구사라든가 장학사한테 물어봐도 "역시 자기들도 잘 모른다."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듣고서 과연 내년에 이것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두번째는 문제지를 몇 번 출제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지 출제자가 좀더 전문적인 연구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혹은 중앙평가원이 라든가 이런데서 좀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현장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교사들한테 문제를 출제시켜서 그것을 거의 검토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가 시험을 보이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런지, 그렇다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모의고사를 좀 여러번 본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번이나 언제 언제 봤으며, 그 결과분석은 어떻게 나왔는가,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결과라고 할까, 내년에는 과연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보충수업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보충수업을 하려면 그야말로 수학능력평가에 대비해서 초학년, 탈교과적으로 보충수업을 그렇게 해야죠, 즉 국어 보충수업 시간에는 국어책을 갖다놓고 국어참고서를 갖다놓고 할게 아니라 신문지를 갖다놓고 한다든가, 광고지를 갖다놓고 한다든가, 혹은 사실을 갖다놓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탈교과적으로 한다면 그런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도 옛날과 별다름 없이 그냥 참고서 갖다놓고서, 문제지 풀어가고 그냥 달달 외우는 방법,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1년을 다른 도보다 앞서가면서 수학능력평가를 왜 실시하며,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가 되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다른 분 질문없으시죠?  
(위원석 침묵)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10시 47분)

○ 의장 김영세 :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총무과장 이근수 : 총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일선학교 교육현장 및 실습지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의 임용권이 도교육청에 있어서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이 늦어져 애로가 많은데, 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인력수급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기능직 공무원은 종전의 고용직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채용, 면직,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고용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과 자격 시험에 의해서 임용절차를 거치고 임용되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러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들 보다 이 사람들이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력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용직 공무원과 신분상 엄격히 구별이 되고, 신규임용, 승진, 전보,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일체의 권한을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사항을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임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님들한테만 임용권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 안되는 이유중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부적절'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인원 구성이 되는데, 학교에는 그런 그 승진임용 사전심사심의회에서 판장하는 기능직 인사를 법 제7조에 의해서 임용권자 별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인사행정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중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는 어려운 것이고, 두번째 '임용권의 분산에 따른 지도·감독체계가 문란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가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배분된 권한의 중요도가 그 지도·감독관계에 상응하여야 하나 임용권중 신규임용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휴직·전보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합리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의한 임용권이 이루어 지지 않고, 학교단위 기관별 임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낭비가 초래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네가지 사유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질문내용에 말씀하셨던 농장이나 양식장에 있는 그 인부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결원이 나면 추천 받는대로 바로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해주는데, 이 충주농고 같은 경우는 현지 사람들이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용 특별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보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그 충주농고 농장에

얼마 전에 견학을 갔더니, 그 소가 폐사가 됐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근수 : 예.

○ 이상일 위원 : 그래서 여름철에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질병이 만연하는데, 또 인력까지 부족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도 그 농장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 주변 사람들 추천만 해주며는 그 자격에 조금 구애되더라도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대로 전부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조금 미비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를 어떤 경우에는 좀 무리해서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천된 사람이 임용을 앉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아무튼 가능하면 빨리 좀 해서 그 농장이나 실습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근수 : 예.

○ 의장 김영세 : 다른 관계관.....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첫째,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교추위의 활동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세가지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첫째, "현재 교추위에 서명한 교사는 시·군별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해서 서명교사는 단양교육청에 53명, 충주교육청에 18명, 재천교육청에 2명, 청원교육청에 1명 해서 본도에는 7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74명은 본인이 확실하게 시인을 한 선생님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추위의 실상과 단체행동의 부당성을 들어 설득하여 철회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서제출자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출자는 31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충북교추위 위원장 박종순에 대한 징계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박교사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탄원서 작성 및 서명운동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더욱 확산될 기미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징계문제는 7월 23일날 징계위 회부와 동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날 1차 징계위를 개최했으나, 본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날 10시에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원서 서명에 대해서는 충주시 연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서외에 484명이 '92년 8월 3일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8월 6일날 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교추위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전교조는 박종순 징계를 계기로 단위학교 조직확대와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그 대처방안은 뭐냐하자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교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고 보며는 이러한 확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전교조는 일단 대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판결이 되었고, 또 따라서

이제 전교조는 지금 전교조라고 불려야 되는지, 일단은 해직교사.....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전교조는 해직교사이고, 교추위는 현직교사들입니다.

○ 이상일 위원 :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켜라." 이런 교추위 얘기가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교추위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복직하고, 대교육개혁이 두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 그 일부 해직교사들이 현직교사들한테 자꾸 전화도 하고, 또 자리를 마련을 해서 교추위에 적극 가입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서명을 받고 충주같은 경우에도 로타리에서 두번, 세번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서명을 받으려고 그리고 아마 어제, 오늘도 수안보에서 간부들 세미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이상일 위원 : 이랬을 때, 어저께도 제가 지역사회단체장들 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교추위 활동이나 해직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소신이 없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해직교사, "전교조" 이것은 이미 불법단체로 복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안되는 거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이상일 위원 : 안되는데 이것을 어디 탄원서라도 내서 생활들이 곤란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좀 애매한 태도를 짓는 일선 책임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얘기가 이걸 복직을 시킨다면 국가의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몰란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지난번 그 해직교사 문제처럼 교육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외부에서 심지어는 압력을 받는 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고.

이래서 다시 한번 일선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떤 세미나 형식이라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런데 각 일선 학교에 수없는 그러한 공문이 많이 나갔고요, 또 업무연락도 많이 나갔고, 또 교장 선생님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또 현재 교추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과 본청, 전문직과 서로 합동으로

해서 현재 31명 남은, 아직까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화를 통해서 본도에 최소의 희생자도 나지 않도록 한명이라도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저 추가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추위가 7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예, 단양에 53명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리고 여타에 있고 한데 청주하고, 남부에는 그 교추위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현재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사람만이 74명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렇지요.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은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 부의장 김광수 : 아니, 74명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이 시인을 하게 됐습니



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74명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조사·검토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시인을 해서 그래서 나타난 현황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이게 언제 날짜 현재예요?

오늘 날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니지요, 벌써 몇 일전의 날짜인데요.

○ 부의장 김광수 : 몇 일자입니까, 이게 파악된 날짜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부의장 김광수 : 이것은 미확인된 애 겁니다만 각 지역마다 상당수가 여기에 서명한 교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교조'하고 '교추위'하고의 근본적인 공통점과 상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대개가 74명에 대한 신상도 과거의 교원노조에 가입을 했다가, 또 일단 탈퇴를 한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맥락으로 보는 거지요.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요번에 이제 31명 남고, 나머지 43명은 또 다시 철회한

사람들이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 사람들도 먼저 전교조에 가입을 했다가 또 철회, 이번에 또 했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부의장 김광수 : 그러면 이 사람들 서명철회를 안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까지도 지역 교육청과 학교장과 또는 연세가 많으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해서 그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아니 이 충주에 있는 책임자라는 사람,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책임자만 하고 그렇지 않은 서명교사들은 안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직 안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왜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직까지는..

.....

○ 부의장 김광수 : 누구는 설득을 하고 누구는 징계회부하고 이 형평원리에 틀리지 않아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니 그렇지요, 위원장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끝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지요.

○ 부의장 김광수 : 끝끝내 버틴다는 것은 31명이 버티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도 아직 계속 저희들 도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래 대화를 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좋지마는 기히 방침을 새웠다고 하며는 날짜를, 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취하를 안한 사람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유독 어떻게 해서 그 책임자 한 사람만을 징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되셨죠?

그 일괄답변을 주옥들으시고서 보충질문하실걸 준비하셨다가, 다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면, 그때 보충질문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 계속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다음에는 이재희위원님께서 학원개방으로 인한 교외 생활지도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별 자체계획에 의한 학구내 생활지도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학원소재지 권역별 생활지도를 강화하면서 지·과출소 단위로 다가 또 경찰을 동원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 유관기관,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해서 학원주변 유해환경 업소나 학원주변 불량배 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자체 생활지도 계획과 실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통신하고 해서 학부모회를 통한 학생보호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 이재희 위원 : 이따 보충질문 할께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중·고생 흡연을 조사통계표 및 그 대응책은?" 해서 저희들 도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중학교 남학생들은 1,2,3학년을 평

군것을 적에 18%정도 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1.9%, 여학생은 3.1% 중학생 입니다, 고등학교는 5.2%의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은 성인들은 담배를 피우던 분들도 자꾸만 금연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해서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해독성 계몽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것에 대한 실시 결과를 각 학교 장학협의시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계도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인해서 예방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는 VTR을 상영을 해서 흡연이나 기타 문제에 대한 해독성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1회 각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 담배 소지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해당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가만있어 보세요, 또,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고교 보충수업의 유형과 그 목적 및 문제점, 대응방침은?" 해서 일반 및 특별보충수업이 유형별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학습부진아 학생들의 학습방법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력을 보충시킨다고 하는 것이 '일반보충수업'이고, 우수학생을 심화학습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마 '특별보충수업'으로 두가지로 나뉘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아시고 계신 것과 같이 학생들의 능력이나 희망을 무시하고서 획일적으로 지금 일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충수업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교과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두번째는 학습효과 제도를 위한 능력별 반편성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 시간하고 거기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꼭 이행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본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또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의 교육적 효과와 평등교육과

의 상치성 여부는?" 우선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자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가 '88년도에는 계열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천951만7천원 총액으로, 그런데 학생 1인당은 180만9천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학생들에게 '89년도는 1인당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준비, 학교시설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인당 경비가 많았습니다마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 여기까지는 점차 주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또 학교를 다시 증축을 하고 기숙사를 신축을 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더 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총 4억6천470만천원이 총액으로 지출이 되면서 학생 1인당 비용은 227만7천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89년도에는 7천182만2천원 총액입니다.

학생 1인당은 119만7천원으로 예산집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도에는 46만7천원입니다, 학생 1인당.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56만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창기 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1인당 경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가서는 총액이 6천555만2천원으로써 1인당 경비는 44만6천원으로 감소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는 일반계하고, 예술계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6만5천원입니다, 1인당 경비가.

거기에서 예능계열은 72만2천원이고요.

그리고 '92년도에 와서는 2천255만5천원 총액으로써 학생 1인당은 3만원꼴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92년도에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8천764만원 총액으로써 1인당은 2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학교는 어떠한 '91년도에 8만5천원, '92년도에는 상승되어서 9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즉 특수목적고의 교육적 기대효과와 평등교육과 상치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수한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의 추진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회 졸업생이 나갔는데, 개교이후 366명이 도대표 선수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바로셀로나 올림픽에는 육상에 이영선, 수영에 지상준 두명이 출전을 했고, 대학진학 현황은 1회때에는 7명이 진학을 했고, 2회때에는 24명이 진학을 했으며, 나머지는 전부다 실업팀이나 또는 기타 기관에 취업이 100%로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과학고는 '92년도 1회 졸업생중 과기대가 50명, 일반대는 8명, 그래서 58명 전원이 진학을 했습니다.

'92년 3학년 29명이 과기대 진학, 그리고 전국 수학·과학경시대회는 저희들 도에서 매년 9명씩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90년도에 6명 '91년도에는 3명, '92년에는 4명 그래서 13명 학생이 전국 수준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예술계열은 아직 졸업생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교육과의 상치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등교육이라하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교육 부여로 되어 있어서 특수목적교의 운영은 고교 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교육에 부합되는 제도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혐의자 인적사항은 삼성중학교의 박중호 교사입니다.

과목은 국어과이고요, 교육 총 경력은 11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당직근무중에 음주행위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그러한 교사입니다.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1호내지 3호, 교육법 제75조, 또 초·중등 당직근무규정 7조 1항,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임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과거 상벌관계를 말씀드리려는 상훈이 '81년 11월 13일날 단양교육장, 또 '86년 12월 5일날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사항이 세번이나 있습니다.

'87년 5월18일날 경고 처분을 받았습다.

그때에도 품위 손상으로해서 음주추태, '89년 6월 13일날 음성교육장으로부터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역시 품위 손상입니다.

'90년 6월 25일 교육감으로부터 징계,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역시 음주로 인해서 품위 손상으로서 역시 그 때에도 또 당직중에 음주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7월16일과 7월22일날 양일에 걸쳐서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해서 해임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도교사 자격연수 현황은" 이 취지는 '전 교사를 교도교사화 한다'고 하는 취지가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선생님이 상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해서 '84년도부터 실시한 결과 매년 30-40명정도 연수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조사를 해보니까 457명이 나왔기 때문에 457명을 국고보조에서 40명 내지 30명정도 실시한다고 하면서 10년도 넘은 그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래서 이것을 연구끝에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91년도에 166명, '92년도 171명해서 현재까지 629명이 교도교사 자격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원수가, 337명이 연

수를 받았기 때문에 457명중에서 불과 120명 정도는 겨울방학때 실시하며는 거의 희망자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액은 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능력 평가 대비 준비사항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P·R 이 안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지도한 사항을 조목조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 7월6일날 고입선발고사 출제방법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 '91년중 실험평가 2회 실시예정이다."

그 다음에 7월28일날 예시문항을 제공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8월21일날 중학교 3학년 학습능력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11월29일날 중학교 1·2·3학년하고 국민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표집 학습능력 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거기의 대비로써 네번을 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3월 11일날 "93년도 고입 선발고사 출제방법 전환"을 각 일선에 정확히 발표를 했습니다.

3월28일날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계획을 시달 했습니다.

5월25일날 수학능력 시험 안내 책자를 또 인쇄를 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7월6일날 작문고사에 대한 시행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찬회는 그러면 몇번 했느냐,

'91년도 5월22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지역 교육청별로 교장·교감·교사·연구주임 포함해서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토의식으로 했고, 그래서 본청 강당 또는 지역교육청 회의실을 활용했습니다.

또 '91년 6월28일날 본청 강당에서 중학교 교감·연구주임 해서 218명, 전문직 51명해서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또 금년에 2월28일날 본청 강당에서 도내 전문직 20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3월19일날은 학생회관에서 중학교 연구주임, 3학년 주임, 전문직등 370명을 대상으로 박도순 교수님을 초청해서 연수회를 갖었습니다.

또 5월13일날은 국·중 연구주임, 중학교 3학년 주임교사, 전문직등 365명을 대상으로 홍순철 연구관님을 초빙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19일날 본청 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200명, 전문직 51명을 대

상으로 교원대 김종환 교수와 우경옥 교수 두분을 초청을 해서 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도내 전문직 208명을 대상으로 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제자는 예시 문항 제작은 국·중·고 교사 31명을 교육연구원에서 지시를 해서 그 31명 교사로 하여금 골고루 연구토록 해서 출제하도록 하고, 실험평가 문항 제작은 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참여를 했고, 검토위원은 교육연구원의 연구사, 본청 전문직이 각 과목별로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행 횟수 및 결과에 대해서는 '91년 8월21일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00분울의 점수로해서 언어가 42, 수리가 26, 탐구가 39, 영어가 33해서 평균 35점이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 실시한 판계로 저조한 점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29일날 다시 실시한 결과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점수가 상승해서 언어는 51.5점, 수리 분야는 33.4점, 탐구는 39.7점, 영어는 36.5점해서 평균 40.3으로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학생들의 인식과 학부모님들의 인식, 선생님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향상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25일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또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92년 5월28일날 중앙교육지능연구소, 6월18일날은 동아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각 학교에서도 아마 비교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 실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저희들이 볼 적에 수학능력 평가하고 보충수업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능력 평가는 이때까지 확일적으로 암기식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좀 흔히 말하고 있는 고등정신능력 분야로 이끌기 위해서 학습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일정한 그 학력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말 자체 그대로의 보충수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학생들은 심화과정까지 해서 올려주는 것이 그것이 보충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수업하고 수학능력 테스트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조금 기다리시죠.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이재희 위원 : 지금 생활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체 계획만은 충실한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여 주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움직여 주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그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는 자율방법대원, 이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두서너번씩 마주칩니다, 수고한다고 인사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학원이 있어서 관심있게 한 서너달 봤습니다, 여름철에.

아직도 교외생활 나왔다는 선생님하고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학원 개방을 하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는 작년 시간외 수당이 상당히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외 수당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외생활지도 나오는 선생님들은 어깨띠를



한다든지, 완장을 한다든지 한다며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선도 역할을 하는 구나' 뭐 이게 좀 바람직한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침에 어머님들도 교통질서 할 때 하고, 보기 흉하지 않은 것이니까 좀 어떤 표라도 나머지는 학생들도 달리 생각을 할 것이니까, 학원 앞에서는 그런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것이 어떤가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9월달부터는 학원감독도 철저히 하고, 생활지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예, 잘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중등교육국 보충질문 없습니까 ?

(권혁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 위원.....

○ 권혁풍 위원 : '전교조'가 이름이 바뀌어서 '전교추'가 됐고, 이것이 또 바뀌어서 '전교위'가 되었다고 했죠 ?

이름이 또 바뀐줄로 아는데요.

그러면 "백락은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교위에서 주장하는 두가지 부르짖음이라고 할까, 그 표방하는 것은 첫째는 해직교사의 복원이고, 두

번째는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 대개혁의 요구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실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며는 삼성중학교에 있는 어느 선생님은 출재할 적에 민자당에 대한 선거관계에 대해서 출재 문제로 낸 것이 물의가 일으켜 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현재 교추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교사가 전부가 다 교원노조, 해직된 교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같은 백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글썄, '참교육'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참교육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그 다음에 권위주의 배격, 또 모든 학교의 운영에 대한 공개행정, 이런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렇다며는 그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라든가, 공개행정, 권위주

의 타파,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분들에 대한 일부분은 또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고,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일을 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성이 되는거죠.

○ 권혁풍 위원 : 글썽, 그 이론하고 실체가 달라서 문제인데, 부르짖고 있는 내용 자체만은 '교육과정의 정상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충수업이 너무 파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공개행정' 같은것은 뭐 지금 밀실행정을 한다든가, 비밀로다 쓱쓱 해 치운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일이고, 또 '권위주의 타파'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는 교육자가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시간 가르치려며는 적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한시간 이상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세밀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날 시간에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학습지도안까지도 작성을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참교육이나?" 이겁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러니까 요는.....

○ 김응복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육자라는 것이 쟁의권을 요구하는 것 아니요, 지금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김응복 위원 :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 김응복 위원 :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 권혁풍 위원 : 단체 행동을 취한다는 것, 그게 방법이 나쁜것인데 표방하는 것은 멋있게 표방을 하고, 실체는 그렇게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 김응복 위원 : 또 한가지, 사실은 명분 좋게, 허울 좋게 내걸 수는 있어요.

교직에 경력이 얼마나 있다고 해서 교육 실무 자체를 전문가가 해도 모자라는 것을 모든것을 자기네가 교육과정도 구성하고, 심지어 교재까지 편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얘가요?

○ 의장 김영세 : 저, 보충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요약하며는 이론과 실제 행동이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서 불법적인 것이다, 이런 결론이시죠?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전교조 문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관계, 여기서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담배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해롭다"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학부모까지도 가정통신을 통해서 설득을 시킨다는 데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1.9%란 엄청난 숫자인데, 더구나 여학생까지도 이렇게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은 참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계속 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결들여서 요즘 한참 말하는 휴거라는 것, 뭐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권혁풍 위원 : 종말론 해서 학생들이 수업도 안하고, 학교도 등교 안하고, 집에서 교회를 나가고 그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직까지는

저희들 도에서는 그런 학생들은 발견 못했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아니요, 그게 국장님이 잘못 아셨을 거요.

'92년 10월28일인가, 몇일날 종말이 온다고 해서 경찰에서는 그것에 지금 손을 쓰고 있어요.

단속하도록 하고, 그런 유언비어에 가까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서요, 학교에 이미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 장소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 김응복 위원 : 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권혁풍 위원 : 그리고 자율학습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를 개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 권혁풍 위원 : 자율학습비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자율학습비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개선책

이 잘 이행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 드리고,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체육고등학교는 1인당 학생 경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감소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119만원에서 44만원으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89년도에 개교할 당시에는 119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46만7천원, '91년도에는 56만천원, '92년도에는 44만6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굴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모든 과학고등학교로서의 체제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순전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비, 학교운영비, 이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소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알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92년도에 227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91년도에 142만 6천원에 비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기숙사 신축,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인해서 '92년도에는 1인당 학생 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기대로 진학하는율이 좋고, 더구나 '우리별 1호' 위성을 발사한 것도 과기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참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의 문제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생활지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즉,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기합을 준다든가 해서 현재 아마 정원을 240명으로 했는데, 지금 180명 유지가 되는가, 그러나 이탈 학생이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은 좋은데, 심하게 기합을 준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데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육상이라든가 수영·체조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노 메달인데, 이런데 기본체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 이탈하는 학생수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중학교때 체육분야에 대한 특기생으로 들어 왔는데, 고등학교에 입학

을 하고 보니까 그 중학교때 수준보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체력이 향상되고, 지적면도 향상되는데 못따라 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해서 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학하도록.

그리고 물론 생활지도상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의 전통이 뚜렷하게 선다고 하며는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서서히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의 중목을 또 늘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인경기 중목은 체육고등학교에 거의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 여러가지들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실정으로 봐서는 그 중목을 육성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기마'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또는 '골프'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의 기본이 되는 '육상·체조·수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또, 수학능력 평가와의 관계인데요, 아까 그 보충수업은 학생의

순수한 기초학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학능력 평가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업방법, 또는 하나의 학생 선발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그러면 교육목표라든가, 수업방법이라든가, 보충수업이라든가, 혹은 평가방법, 이것이 서로 제각기 논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연계가 돼서 수업목표라든가, 수업방법, 평가까지 다 연계가 돼서 비교가 되어야 될 텐데, 국장님 말씀 듣자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보충수업 하고 수학능력 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권혁풍 위원 :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까요?

○ 권혁풍 위원 : 아니,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수학능력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위주에 입각한 암기식, 달달 외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거의 40년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만 취급하는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흘러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94학년도부터 실시하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방법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중학교 학생만이라도 입시위주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기 분야, 즉 책도 좀 많이 읽히고, 또 생각도 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취미를 마음껏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즉,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험 준비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학능력 테스트를 실시한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 글썄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충수업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보충수업도 입시를 떠나서 아주 기초가 닦여져 있지 않는 학생과, 그 다음에 더 심화과정으로 해서 머리가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또 중간치는 중간치, 그것이 능력별 반편성에 입각해서 보충수업다운 보충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보충수업' 할 것 같으며는 정규 교육과정 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교육과정 운영인데 그렇다며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그 수학능력 평가의 취지에 맞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게 하자' 그러면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응용능력과 적응능력, 뭐 이런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충수업시간에는 정규 수업시간에 하지 못한 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생활자료, 생활에서 나온 자료들 이런것을 가지고 하며는 수학능력 평가하고도 취지가 맞고, 다 수업방법도 거기에 맞아 떨어지고 일치가 될 텐데, 왜 그것을 별도로 지금같이 하는 것을 목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입시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수학능력 평가의 취지에 맞게, 좀더 독서를 넓히고, 그리고 생활 경험을 많이시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보충수업이 되었으며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보충수업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동떨어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옛날처럼 참고서나 가지고 하지말고 좀더 범위 자료를 넓혀가지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비판할 수 있는 토론습성,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간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보충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의를

말씀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중등교육국 소관 질문 이상 마치고, 다음 순번 나오시죠.

(초등장학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이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말씀하세요.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이재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방송 난시청 지역의 비디오 테이프 제작 공급 용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내용에 관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방송을 두가지로 대별을 하며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고, E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난시청 지역은 TV 프로그램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학교의 경우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도내 169개 학교가 난시청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공급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도 어렵습니다마는, 반면에 교육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할때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동시성이라든지 혹은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방송시간이 다섯시 반 이후에 방영이 되고, 또 교육과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시 반 이후에 그것을 복사를 했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서 오는 사용 빈도의 저조, 이런 것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복사해 주고자 하며는, 지금 3천원정도 하는 공테이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한 학년당 한 과목에 20개씩 6개교과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억 6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완 대책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교비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만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에서 복사기구를 갖춰가지고 있고, 실제 복사 봉사를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방송 시범학교와 지역 센터 학교를 두고 있어서 그 학교에서 복사,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학교에서는 거기에 가서 복사를 해다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며는 별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것을 해줄 수 없느냐" 하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야 훨씬 교육 효과가 올라가리라고 말씀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예, 저도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몇 분은 어제 그것을 모르시는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율학습 같은 것을 시키려 해도 적당한 뭔가가 없는데 그런 자료만 있으면서 활용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문으로 희망학교를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데만이라도 좀 해줄 수 없나, 교장들 요청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 교장들이 관내 시범학교에서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과학교육원에서 일률적으로 몇월분 몇 개 필요하다고 어떤 학교가 요청하면 희망하는 학교만 해줄 수 없는가 하고 여쭙보는 것입니다.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그 문제는 현행 운영 체제만 가지고도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한가지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원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은 화재관련 사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보은 관기국민학교이고, 한 건은 괴산 장암국민학교인데 보은 관기국민학교 건은 외래자가 침입을 해 들어와서, 아직 유아들입니다, 그 애들이 실화로 인해서 불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학급관리 소홀과 방화관리 소홀로 해서 견책을 전부 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러나 장암국민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화기 취급을 잘못 해가지고 스스로 저지른 그런 실화였기 때문에 감봉에 처해졌습니다.

그 이외에 초등관련 교사의 징계는 아까 박중순 교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보충 질문할 위원 안계시죠?

(위원석 침묵)

다음 관리국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혁 : 관리국장 김근혁입니다.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회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행주대교 붕괴로 인하여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하는 등 초비상 상태에 있는 바, 현재 본청 관내에 발주중인 공사는 이상이 없으며, 대형공사 발주지연 사례는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대형공사가 없습니다.

대형공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발주중인 공사에는 현재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시설계장 회의를 8월11일날, 그지계 개최를 해서 공사 감독 요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의 발주지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원월 학생 종합생활관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원월학생종합생활관 공사는 '92년 8월12일날 착공을 해서 10월20일날 준공예정으므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일선학교 공사의 판급자재 및 기타 자재에 대한 검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는 판급자재에 대한 검수는 본청 기술적이 KS품목은 수량, 질등을 검수하고 있고, 그 외의 자재에 대

한 품질검사는 사용전에 2만매당 1개씩 전품을 공업시험소에 검사 의뢰하여 합격이 된 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보일러 배관 공사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본 공사를 총액 입찰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본청 보일러 배관공사는 일체식 구조물으로써 이러한 동일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의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와 회계예규 2200-12-4에 의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요령"에 의거하여 설계상에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 한 후,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집행하고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액입찰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본 공사의 설계금액과 공사명세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금액은 6억2천58만8천원으

로서 주요공사명세는 난방 및 위생설비공사비가 4억4천479만원이고, 또 화장실 보수 및 천장 텍스수선공사가 1억1천489만원이며 전기수선공사는 2천90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판급자재인 보일러의 2종의 대금은 3천1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전기공사비가 얼마라고요 ?

○ 관리국장 김근학 : 전기수선공사가 2천90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보일러 배관공사에 대한 입찰 집행과 계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로 했으며, 응찰인원은 본도내 등록업체가 49개업체중에서 응찰업체는 14개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명신기업이규철씨에게 낙찰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설계금액은 5억5천968만원이고, 예정가격은 5억5천120만원이고, 낙찰가격은 5억4천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낙찰가격 법적 효력은 설계변경이 없는 한 낙찰가격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이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의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려는 총소요액 6억133만6천원중 확보된 예산은 당초예산 2억4천5백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1억8천5백만원이 확보됐고, 중앙 화장실 예산 천3백만원, 보일러의 2종 판급자재대금 3천185만6천원등 총 4억7천485만6천원이 확보됐고, 부족액은 1억2천648만원입니다.

제1차 공사금액과 공사내역은 제1차 공사의 계약금액은 난방설비 공사에 1억5천708만2천원이고, 건축공사는 7천633만천원, 그래서 합계가 2억3천342만3천원과 전기공사 천327만7천원이며, 공사내역도 계약내역과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차후 준공까지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부족액 1억2천648만원중 2천977만4천원은 연구원 청사 신축과 본청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액 9억6천70만6천원은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보충질문 더 하시

겠습니까 ?

(김사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김사수 위원 : 시간도 많이 가고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후 추진 계획에 부족액을 이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당해년도에 동일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삭감됐을 적에 똑같은 목적의 동일 사업을 가지고 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아마 예산 운영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어가고, 또 도의회와의 관계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명분없이 삭감한 것은 아닐 것이요.

한 2억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아무런 명분없이 그냥 삭감만 한것은 아닌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뭔가 기준이 있고, 명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이것을 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려달라 할 적에 도의회에서 과연 해줄 것이냐, 또한 삭감할 적에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을 한 사항일 겁니다.

이러한 사안의 예산을 또 추경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아마 어느 의결기관이라도 선뜻 해줄 의결기관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 도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려도 저

희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여러가지 공사의 성질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도에가서 깎여놓고 또 교육감이 도에서 동의까지 한 것을 지금와서 교육위원들 보고 또 이것을 추경증 해달라.....

글쎄요,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 생각으로서는 추경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이것을 가지고 또 집행잔액, 말하자면 연구원에 2천9백만원인가 얼마 세워진 것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시설비 예산에 불급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최대한 현재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할 것 같으며는 할 얘기 없죠, 얼마든지 호화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소요액을 책정해서 그래도 정히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한다든지 지불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야지, 예산추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생각은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법은 쓰지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방송에도 방영됐던 얘기를 했

는데 우리 다같이 예산을 다룰 때는 과연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마세크탄, 그렇지 않으면 톱밥, 이런것을 난방으로 해가지고 고사리 손을 호호 불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견뎌내고 있어요.

더구나 냉방도 그렇습니다.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수업하기가 곤란한 이러한 실정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또 그것들의 의식 안해서는 안됩니다.

감안 할 적에 추경을 해서까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발상은 온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한 돈이 한 2억4천5백만원인가 있는데, 명시이월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는 명시이월할 사업이 아니예요.

작년도 연말에 낸 명시이월의 사유를 봤더니 '아연파이프를 동파이프로 바꾼다'.

또 '냉방을 여기 범양상사에서 갖다 놓은 보일러,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내부를 완전 냉방을 한다',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 명시이월은 안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제가 구구한 얘기를 안해도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참, 그야말로 구호로 내걸고 있는 이런 때에,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이 명시이월이란 것은 지출의 특례인데, 그렇게 하라고 명시이월이 된게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 저런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공사가 우리가 애초에 절약을 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남은 공사라도 절약을 해서 예산이 있게 될 것 같으며는 일단 학교에 교단 위주의 경비로 돌린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릴까요 ?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하세요.

○ 관리국장 김근학 : 감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배관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확보된 예산을 절약을 하든지, 다른 예산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도의회에서 삭감될 당시에 교육감이 동의해준 예산을 도의원들이 추경을 했을 경우 해주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사과정에 저희들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의원들 일부가 아마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감 동의를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경우에 "이것을 삭감 할 경우에는 보일러 배관 난방 공사가 중단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결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예결위원회에서는 단 5분간 정회 한다고 하면서 정회를 한 후, 자기들끼리 여러가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고서 5분 정회한다던 것이 한 30분 이상 정회해서 여러가지 설왕설래 된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도 있고, 또 검사하신 분 의견도, 거기서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권고한다고 하면서 입장이 거북한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함묵 불복을 하다가 그냥 안(案)으로 하기로 하고, 내막적으로 '추경에 올릴 경우에는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내막적으로 된 것 같은데, 공적으로는 확인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회 위원들께서 회의가 끝난 후 나오셔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들을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회의에서도 "이 예산의 확보가 꺾였을 경우에는 저희들 난방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확보해준다고 하려는 저희들이 부득이 동의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걸로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동의를 그냥 동의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아려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기 확보된 예산이나, 절감액이라든지 입찰 잔액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단일공사, 단일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아려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같은 연도가 아니고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같은 연도에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도록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해아려서 저희들 보일러 배관 난방공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 교육위원들께서 잘 해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런데 도의원들, 관리국장한테 "해준다" 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후에 의장님이 예결위원들,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준 다 손 치더라도 무척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솔직히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납득을 할 수 있는, 참 그야말로 우리도 납득을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셔서 이 다음에 우리가 시일을 두고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제가 관리국 소관에 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 회기내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기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상에는 회계년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일단 삭감된 예산안은 당해 회계년도에는 다시 계상되지 않는 것, 이것이 관례예요.

이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입찰에 있어서 우선 예가조정이 몇 %로 되어 있죠, 프로텍이므로, 1.5%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1.5%로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맞죠?  
또 낙찰금액이 몇 %로 입니까?

81점 얼마죠?

(집행기관 식에서)

○ 재무과장 고일영 : 81.3%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며는 이 낙찰이 81.3%로 되어 있는데 예가조정은 1.5%로 했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자재난이 되든지, 자재값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1.5%의 예가조정은 입찰업무의 관행상 최하예요.

제일 높게 조정해 준 것이예요.

그런데 기계시설 업무에서 1.5%로 예가조정 했다는 것은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운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상례가 보통 기계시설에는 내무행정 기관에서도 4%이상 조정 많이 해요.

그리고 낙찰이 실제로 81%로 되는데 예가조정은 1.5%로만 조정해 줬다며는 상당히 여기서는 후하게 내용을 조정해 준 것이다, 이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재회위원 질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여기는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뒤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소의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짚어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진천야영장에 식당뒤 담벽이 내려 앉았어요.

이것이 몇 년도에 공사한 것이며, 시공업자는 누구이며, 이 담벼락이 파손된 원인행위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여기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적에는 만일에 시공업자의 부실이 들어난다면 그 시공업자를 거래정지 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진천학생종합야영장 그 식당뒤에 균열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도 그 문제가 대두돼서 설계상이나 공사감독상에 여러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것은 당초의 설계나 시공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숙박동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배수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배수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곳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그것이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 걸로 저희들 기술진이 진단해 본 결과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8년 12월에 그 공사가 완공되어서 그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때는 숙박동이 건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

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쪽 업자들에게 실무진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많이 지났고 자기들이 시공해서 완공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그게 수로에 의해서 그 하자가 생겼다는 규명은 어디에서 했어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우리 기술진에서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여기 기술진에서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더 짚어 드릴까요?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자 누구입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공사감독자는 지금 지역교육청에 시설계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 당시에 그거 벽을 쌓았을 적에 허물어진 사실이 없나요?

○ 관리국장 김근학 : 그 벽은 아니고 이쪽 강당 위에 씌울때, 지붕을 덮을때 좀 도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내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강당도 쓰러졌지만 그 벽도 허물어졌어요, 그 벽도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았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그렇게 위증을 한다면 내가 현장감리를 시키겠어요, 확실한 것은 부실이면 부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원리적으로 맞는거지, 그렇게 은폐하면 내가 규명을 해주겠어요, 그때 시설과장 현장감독했지요?

(시설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 의장 김영세 : 그때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안허물어졌어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시공당시에는 허물어진게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후에 안허물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두번째 허물어진게 아니예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식당부분 연통부분이 조금 크랙이 간 것이 있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크랙이 아니라, 그 담이 두번째 허물어진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시설과장 박성근 : 연통부분만 다시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연통부분만, 여하튼 거기서 원인이 온게 아니냐 이런 얘기로, 그

러니까 공사자체가 부실성이 있던거예요, 그게 지금 수로에 의해서 부실이 온게 아니예요, 내가 아는 상식에는.....

뭐 이상으로 받아두겠어요.

- 부의장 김광수 : 이 수로 때문에 담이 무너진다면 남아있을 담이 어디 있겠어요, 부실공사니까 그렇겠지.....
- 의장 김영세 : 또 질문하실분 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건의사항 몇 가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한데서 건의사항 한서너 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력경시대회는 이제 순전한 주지교육에서 나온 시험보기 대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글자 그대로 '경시', 시험이라는 시험 '試'자인데요, 이게 결국은 영재를 발굴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교사경쟁용으로 쓰기에 알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경시대회를 경기대회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기능경기대회, 시험페이퍼 테스트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주지교육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영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좀 더 많고, 점수가 좀 더 많다고 해서 그게 영재입니까, 수학경시대회 같은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수학같은 것은 순수 형식과학이기 때문에 그건 페이퍼에서 어느 정도 그 능력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국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경시대회로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국어같은 목표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그 말하기 대회를 한다든가, 혹은 듣기대회를 한다든가, 혹은 읽기 대회, 쓰기대회, 작문 같은 것, 혹은 발명대회를 한다든가 과학에, 혹은 지금 하고있는 컴퓨터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서 참 이해가 가고 바람직한 것도 아닌가 보는데, 순전한 모든 과목을 다 경시를, 시험을 봐가지고서 거기서 영재를 발굴한다, 페이퍼 테스트해서 점수나왔다고 그게 영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점수 좋은 학생이 앞으로 영재로서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건가 할 때 이게 다 기능선수, 스포츠 대회의 체육선수들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것 아닌가, 즉 겉으로만 나타난 그 기능대회라는 것은 경

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스포츠 같이, 시험을 어떻게 테스트 해가지고 영재를 발굴할 것인가 하는 의미로써 수학경시대회는 모르나 다른 것 같은 것은 경시대회를 지양하고서 경기대회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참고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강조하는데, 보충수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보충수업입니다.

보충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여러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처럼 자유의사와 그 시간을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그 보충수업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라든가 잡지, 혹은 VTR이라든가 혹은 세계명작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읽혀서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발표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해서 비판정신을 기르고 하면, 정말 학생들이 재미가 있어서 지금처럼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흥미 진진해서, 보충수업을 기다리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조금 바꾸면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참고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건의는, 지금 중등국장님께서도 조사를 안하신것 같은데, 그 휴거학생, 그 휴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판여가 되고 공부를 안하고서 가출을 하고, 혹은 재산상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혹은 자살소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태인데, 이것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세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좀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집행청에서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3. 기타 안건 처리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기타 안건처리의 순서입니다.

협의할 내용이나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이재희·홍신희·김응복  
이근수·김사수·박병해·권혁풍·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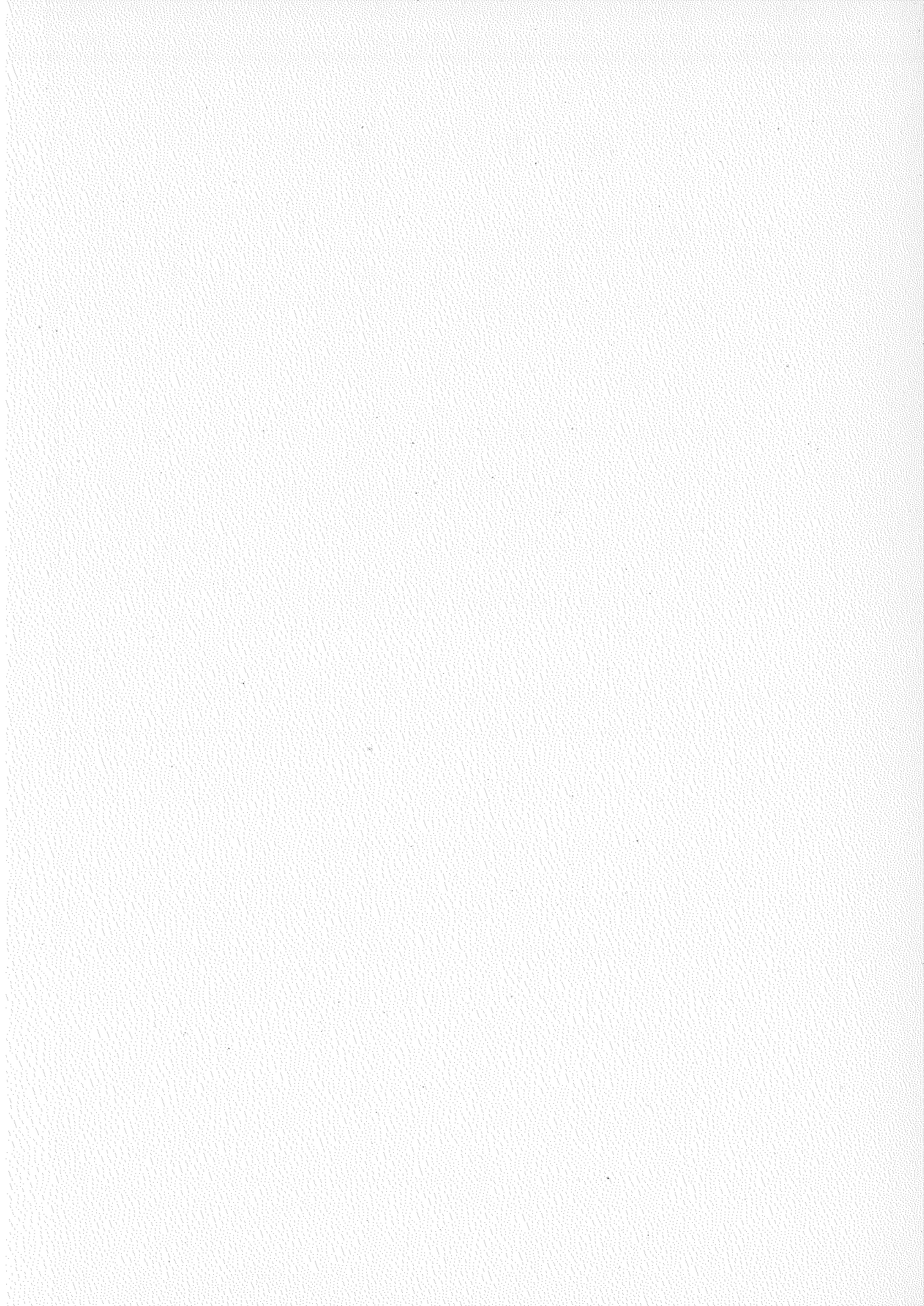
( 별첨 1 )

## 議 事 日 程 ( 案 )

第 12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 臨 時 會 )

1992. 8. 12. - 8. 13. ( 2 日 間 )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12.(수) 14: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 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8. 12. - 8. 13. ( 2 日 間 )
8.13.(목) 10: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의결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 기타 안건 처리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 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2 - 1
----------	--------

발의년월일 1992년 7월 31일  
발 의 자 이상일 교육위원 (인)  
외 3인

###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의사담당관' 직명이 '의사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관인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의사담당관' 직명을 '의사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별표4)
- 나. 관인 관리자를 '의사담당관'에서 '의사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
- 다. '정부관인규정'이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 됨에 따른 근거규정 변경  
(안 별표 4)

### 3. 참고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 ( 참 고 법 령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제 22 조(의사국의 설치등) ① 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④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관인의 규격(제37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구 분		한 변의 길이
정 인	국무회의	5.4
	기타의 합의제기관	3.6
직 인	대통령	4.5
	국무총리	3.6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및 1급이상의 직위	2.7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